

# 21

## 문둥병자 나아만의 순종

왕하 5:1~14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8장 (날 도우시네)

오늘 배울



1. 나아만이 행위가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병 고침을 받았음을 압니다.
2.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만이 버려야 했던 것들을 압니다.



그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일곱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왕하 5:13~14)



## 을 이해하기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민족적 영웅이자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히도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에서 잡혀 온 종노릇하던 어린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나아만을 불쌍히 여겨 이스라엘에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즉시 계집아이의 얘기를 아람 왕에게 알렸고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 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 당황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도록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친히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예상과는 달리 엘리사는 그의 사환을 보내어 단지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말만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문둥병이 있는 자리에 손을 대는 등 종교의식을 행하여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했기에 이러한 종의 말에 크게 노하여 그대로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종들이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로 그를 설득하자 그는 뜻을 돌이켰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엘리사의 말대로 몸을 일곱 번 강물에 씻었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나아 그의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방인인 그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 그리고 부끄러움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내놓았으나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9)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one should boast. (Eph 2:8~9)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얻는 것이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예를 들어봅시다.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다음 ( )를 채워 봅시다.
  - ①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 지며 (레 14:7)
  - ② 제사장 ( )은 ( )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일에는 성을 (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수 6:4)
  - ③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왕하 4:35)
  - ④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 강에 (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왕하 5:14)
  - 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어 흠 도가니에 (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 12:6)
  - ⑥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 119:164)
  - ⑦ ( )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나아만이 ( )번이 아닌 여섯 번만 씻었다면 문둥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완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2 다음 표 안의 빈 칸을 채워보면서 결과를 비교해 봅시다.

말씀	내 생각	말씀대로	결과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왕하 5:10~14)	저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침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	내 생각	말씀대로	결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눅 5:4~11)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 )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는 자기와 밧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 예수 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 대 무서워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 )을 취하리라 하시 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 고 ( ) 것을 버려두고 예수 를 좇으니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삼상 15장)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삼상 15:15)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 까지 치라 하셨거늘 (삼상 15:18)	( )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왕이 여호와와 ( )을 버렸 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 나이다 (삼상 15:23)
하늘을 우러러 뭇별 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 으리라 (창 15:5, 17~18, 21장)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 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창 17:17)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 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 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창 18:12)	여호와께서 (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 )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 21:1)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 )을 낳으니 (창 21:2)

**3**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던 나이만 장군에게 감히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전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였습니다(왕하 5:2~3). 이 아이의 평소 행동이 구별되고 신실하지 않았다면 그 한 마디가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주인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적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삼상 15:22

---

---

---

---

---

---

---

---

의

눅 4:27

---

---

---

---

---

---

---

---

화

행 5:29

---

---

---

---

---

---

---

---

↑

롬 6:17~18

---

---

---

---

---

---

---

---

↓

롬 10:2~3

---

---

---

---

---

---

---

---

↓

살후 3:4

---

---

---

---

---

---

---

---

↓

히 5:8~9

---

---

---

---

---

---

---

---



## 순종

어느 임금의 신하들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하여 세 신하를 불렀습니다.

“신하들은 못의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항아리마다 깨어진 것이라 두 신하는 포기하고, 한 신하만 어머이기 때문에 끝까지 퍼다가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못 물이 없어져 바닥이 닳을 때 번쩍이며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금덩이였습니다. 임금에게 드리며 사실을 얘기하니, 임금은 기뻐하면서 이 금덩이의 입자는 충성되어 순종한 신하의 것이라면서 상으로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삼상 15:22~23)



## 질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구절에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이라는 것은 죄를 정결케 안한 부분도 있다는 것 인가요? 죄를 정결케 안한 부분은 못믿는 죄를 뜻하는 건가요?

구약 이스라엘민족에게 주신 율법과 죄를 용서 받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기구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관유(기름)를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레 8:10~12(관유를 취하여 거룩하게 하고), 30절(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거룩하게 하고) 등에서와 같이 기름을 발라 거의 모든 기구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 9:22절에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는 장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 모형으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히 9:22절 말씀은 유대인의 제사법에서 피가 중요했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보혈이 정결케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졌던 엘리야의 생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감절이나 구했던 엘리사도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으로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값없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 ● 승리의 기도를 한 엘리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가 기적과 능력의 연속일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 ● 이방여인 이세벨

이세벨은 지중해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했던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조건이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혼인한 이세벨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집니다. 이세벨과의 이방결혼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고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할 때 모든 죄가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 로델나무 아래의 엘리야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재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강박해진 이세벨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자 낙망하여 죽음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먹여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이 될 때마다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 ● 구원의 이적을 행한 엘리사

엘리사가 행한 많은 기적 중에는 ‘여리고의 물을 고침’, ‘국의 독을 없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침’, ‘과부의 기름병을 채움’, ‘보리떡 이십과 채소로 백 명을 먹임’과 같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었던 수뽕 여인의 아이를 살렸던 기적’과 ‘엘리사의 시체에 접촉된 시체가 회생’된 기적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사역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갯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간절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 ● 문둥병자 나아만의 순종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 그리고 부끄러움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바라고 낮은 마음으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많은 예물을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기 때문이며,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리활동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